



IB 학교 잡음... 교육당국 소통 능력 시험대

도교육청 표선고 'IB 학교' 선정에 학부모 "도입 일러"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서도 "주민 설득 과정 필요" 주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한국어 IB (국제 바칼로레아) 학교'로 표선고를 선정할 것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공모 신청 과정에서 표선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교육 당국의 소통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표선고를 'IB 학교'로 선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내 읍면지역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유일하게 신청서를 낸 표선고를 심의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표선고는 인증학교(IB 월드 스쿨)로 향하는 길을 내딛게 됐다. 관심학교 자격을 얻기 위해 오는 12월 중 IBO(IB 사무국)에 학교 정보를 제출하고 내년 3~4월 후보학교 신청서를 내는 등의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2022년부터 IB DP(고등학교 프로그램)가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IB 인증학교로 가기까지 놓인 길은 녹록치 않다. 도교육청의

IB 학교 선정 결과를 두고 고교 학부모와 동문회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탓이다. 표선고 인근 지역 초중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IB 학교 신청을 요청한 것과 달리 교육청 공모 마감을 앞둔 지난달 29일 열린 표선고 운영위원회 회의에선 IB 교육프로그램을 서둘러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에서 학부모와 지역 위원들은 IB 교육을 원치 않거나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지역 이탈, 대학 입시 연계성 저조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다.

최운철 표선고 운영위원장은 "IB 교육프로그램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며 "지역학교 살리기 목적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면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제주도의회가 이석문 제주도



21일 제378회 정례회 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김창식(제주시 서부) 교육의원은 이날 열린 제378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실제 이해 당사자인) 초·중·고교를 중심으로 여론 수렴을 진행했는지 모르지만, 표선고 동문회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 과정이 부족하고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있다"면서 "정말로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선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에 대해 "지역의 요구가 있어 지금까지 3회 이상 전체 설명회를 하고 동문회,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과의 개별 설명회도 20회 이상 진행해 왔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 표선고를 IB 학교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민생·1차산업 보호 법안 국회 통과

오영훈 의원 발의 법안
농어촌정비·초지법 등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사진)이 발의한 민생·1차 산업 보호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의원은 21일 성범죄자의 게스트 하우스 영업을 금지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과, 초지의 불법전용 행위를 막는 초지법 개정안, 신제품 감골 재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종사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폐쇄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촌민박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어촌민박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지법 개정안은 초지가 본래 용도와 달리 사용되는 경우 제지할 근거를 마련,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종사산업법 개정안은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취득해 판매하려는 경우, 그 취득 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했다. 수입 종자 판매 이후 종자에 대한 권리를 해외에서 주장하면 종자를 사용하여 재배하는 농가에게 과수 판매중지나 로열티 지불 등의 피해가 가는 맹점을 보완했다.

오 의원은 "최악의 20대 국회, 식물교회라는 어려움 속에서 간신히 1차 산업을 보호하고, 민생을 위한 법률이 통과됐다"며 "국민게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구성 절차에 문제”

김경학 도의원 재구성 촉구
“오히려 갈등·혼란 부추겨”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킨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의화운영위원장)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특위 재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태석 의장과 '직권상정'을 놓고 벌인 신경전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21일 김경학 의원은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전 인수식 해석과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 등으로 특위의 자율성·중립성·정당성·수용성 문제가 발생, 오히려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특위 재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 주장의 근거는 특위 위원 구성이 관례상 6명의 상임위원장과

의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7명으로 구성되던 것을 이번 특위에서는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 없는 상태로 김태석 의장이 1명 더 많은 2명을 추천하면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15일 이경용 의원과 18일 안창남 의원이 비판을 했고, 급기야 특위 위원으로 추천된 김장영 의원은 '들러리가 될 것이 뻔하다'며 위원직을 사퇴하기에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행태는 특위의 역할과 책임을 기대하는 도민들을 절망하게 하고있다"고 김태석 의장을 겨냥했다.

이어 "특위에 대한 역할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중립성 확보가 생명"이라며 "지난 몇 일간의 갈등을 뒤로하고 이제라도 특위 구성의 정당성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김경학 의원이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일 도의회 의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안건의 직권상정 규정을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해야만 가능하게 하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도-강원도 상생협력 협약
관광·평화협력 교류 기대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가 지역발전과 우호교류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강원도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주도는 22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김성인 정무부지사와 강원도 김성호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와 강원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지방자치단체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분위 조성 위한 교류협력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비롯 ▷지역 농수산물 홍보·판매 확대 및 농촌영농인력 교류 ▷중소기업 판로 개척 및 마케팅 등 공동협력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 발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청년 성평등 정책참여단
23일 활동 공유회 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제주시 이도1동 소재 북학문화공간 관심사에서 '제주청년 성평등 정책 참여단 활동 공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 정책참여단의 활동 사업 소개와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청년의 관점에서 성평등 의식확산과 정책개선을 진행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알림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

한라일보사는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한국신문협회·사랑의열매와 함께 연말연시 성금모금을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성금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사에서는 성금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 모금기간 : 2019년 11월 20일(수) ~ 2020년 1월 31일(금)

■ 계좌번호 :

중앙회 계좌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신한은행 100-013-446845 • 국민은행 099-01-0339-091
• 우리은행 323-085103-01-001 • 농협중앙회 083-01-263423
• 외환은행 068-13-21094-9 • SC제일은행 057-10-013340
• 하나은행 140-224581-00105 • 씨티뱅크 157-50149-256
• 우 체 국 012591-01-006655 • 기업은행 082-033121-04-016

제주도 제주지회 사랑의 계좌

• 농협은행 963-17-003420 (예금주:제주공동모금)
• 제주은행 03-13-004820 (예금주: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공동모금)
• 신한은행 100-013-454780 (예금주: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문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홈페이지 www.chest.or.kr, 기부상담 전화 080-890-1212)

한라일보·한국신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慶 제9회 蒼松人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祝

노란 감귤과 억새꽃이 출렁이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아 1만여 동문 등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제9회 蒼松人 한마음 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선·후배 간의 돈독한 우의와 화합을 다지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리에 부디 동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2019년 11월 24일(일) 10:00 ♡ 장소: 애월고등학교 운동장

참가대상

- 문치자팀(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홀수 기수)
- 나가자팀(10, 12, 16, 18, 20, 22, 24, 26, 28, 30, 40 짝수 기수)

추진위원

- 대 회 장: 양호선
- 집행 위원 장: 고태민(21회), 송영숙(24회)
- 집행부위원장

- 강시영(20회) 강승자(20회) 고영욱(20회) 김남용(20회) 김숙희(20회) 김옥림(20회) 변명욱(20회)
- 변호근(20회) 양용철(20회) 양창식(20회) 양준희(20회) 진성호(20회) 한복남(20회) 홍용택(20회)
- 문영배(21회) 강영두(22회) 강우현(22회) 강창수(22회) 김형진(22회) 부희석(22회) 강병진(23회)
- 안충호(23회) 진동철(23회) 고대중(24회) 고여중(24회) 변성구(24회) 양동일(24회) 임경주(24회)
- 문순생(25회) 김여중(26회) 홍승지(26회) 김봉석(27회) 김성익(27회) 양원준(27회) 유인순(27회)
- 고혁용(28회) 장영민(28회) 강경남(29회) 부창우(29회) 안인옥(29회) 강동현(30회) 김봉규(30회)

- 심판위원장: 양용만(23회), 박종실(24회)
- 준비위원장: 성수열(29회)
- 봉사 단 장: 홍시열(22회) ○ 집행부장: 고승표(30회)
- 운영 부 장: 임상언(27회) ○ 재정부장: 김승희(24회)

연락처

- 사무처장: 성수열(010-7603-1226), 총무부장: 고승표(010-2025-5348)

애월고등학교총동창회 회장 양 호 선

노오란 제주 감귤향기를 안고 국적과 언어를 넘어
세계 각국 달림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건강과 감동의 레이스!

제17회 The 17th Halla Marathon

2019 제주감귤국제마라톤

종코스(하트코스) 10km/5km

조천운동장 START FINISH 월정리해안도로 방향 왕복

주최 | 한라일보사, (사)제주감귤연합회(농협)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육상연맹 ·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2019 제주감귤국제마라톤
성공개최를 축하합니다.

서사라
모이세 해장국 직영점

대표 양 문 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5길 37
☎(064)751-6501, 010-4429-5315

성미횟집

휴무 : 매주 화요일

대표 강 기 화

제주시 서광로18길 18 ☎751-1250
010-5858-1250, 010-5338-1251
한라일보 맞은편 고순희내과의원 뒷편